

건강칼럼

열에 의한 피부 이상 - 열성 홍반

열 성 홍반이란 장기간(수개월)에 걸쳐 화상을 입지 않는 정도의 열에 노출 시 발생하는 과색소성 반이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홍반이란 붉은 색의 주위 피부색과 현저히 다른 편평하게 경계지어진 피부 증상으로 보통 1cm이하를 '반점' 1cm 이상을 '반'이라고 부른다. 홍반은 혈관의 확장으로 인해 혈류량이 모이면서 붉게 보이거나 혈류량의 증가가 없더라도 주변조직의 변화로 피부표면의 미세한 혈관이 보일 때 나타난다. 열성 홍반의 증상은 망상(그물 모양)의 홍색 반으로 나타난다. 초기에는 열에 노출된 부위에 붉은 반점 모양으로 나타나다가 시간



김 이 곤
구암한의원장

이 지나면서 나선이나 고리모양으로 진행되며 간헐적으로 피부의 모세혈관이 확장되는 현상도 나타난다. 여성의 다리 등 주로 피부의 노출이 많은 부위에 생기지만 만성화되면 얼굴이나 목 주위, 손, 복부

등에도 나타난다. 열에 의한 붉은 반이지만 계속 열에 노출되면 갈색, 암자색, 흑갈색 등 영구적인 색소침착이 생길수도 있다. 겨울철에 뜨거운 난로에 가까이 오래 동안 있거나 뜨거운 온돌바

닥에 자주 노출되는 여자의 다리에 서 호발한다. 주방에서 열을 이용해 조리하는 요리사나 제철소의 용광로 작업을 하는 사람 등 직업적으로 오랜 기간 열에 노출될 경우에도 발생하기 쉽다. 대부분의 열성 홍반은 초기에 추가적인 열에 대한 노출을 줄이면 차츰 사라진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온열기구를 너무 가까이 하지 않고 방바닥의 온도를 과도하게 높이지 않는 등 열에 대한 노출을 최대한 줄이는 게 좋다. 또한 피부 보습제를 항상 사용하며 내복이나 담요로 체온을 유지하는 게 좋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필라델피아에서 판매용 개 55마리 구조



펜실베이니아주 동물학대방지협회(SPCA)는 지난 4일(현지시간) 미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구조된 두 마리의 개 사진을 공개했다. 당국은 필라델피아 서쪽 약 95km 떨어진 랭커스터의 한 집이 비위생적인 상태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키네 코르스 22마리, 프렌치 불독 16마리, 보더 콜리 13마리, 포메라니안 허스키 3마리, 도베르만 핀셔 1마리 등 55마리의 개와 강아지를 구조했다고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이 개들의 소유주가 인터넷에서 동물을 판매하는 사람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며 구조한 개들은 건강 검진을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독자제언

'스쿨존'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새학기를 맞아 유치원과 학교들이 개학하고 어린이들이 통학하기 시작하여 이 때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의 안전운전이 더욱이 요구된다. 스쿨존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정문의 주변 300m이내의 통학로에 지정되어있는데, 이 곳은 노면의 색깔이 일반도로와 다른 적색이며 과속방지턱 등 각종 교통안전시설물이 설치되어있다. 스쿨존에서 운전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어린이가 다치는 교통사고가 낮

을 경우 12대 중과실에 포함되어 형사처벌을 받게된다. 또한 스쿨존에서는 30km 이하로 서행해야 하는데 스쿨존 내 주유 법규위반 시 범칙금과 벌점이 2배 강화 처벌된다는 점도 알아야한다. 어린이는 나라의 보배라는 말이 있다. 벌점과 범칙금을 떠나서 모든 운전자들은 스쿨존을 지날 때 내 아들, 딸이라는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주길 바란다. 백요셉 고창경찰서 흥덕파출소 순경

'비보호 좌회전' 제대로 알고 운전하자

간혹 운전자들이 비보호 좌회전에 대해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이로 인해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보호 좌회전이란 내 신호가 녹색일 때 반대편에 오는 교통흐름이 방해되지 않는 상태에서 좌회전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운전자는 적색 신호시에도 다른 차량의 방해만 되지 않다면 좌회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적색 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을 진행하는 건 '신호위반'에 속하는 것, 알고 계셨나요? '신호위반'은 교통 법규위반 중 중대한 위반 사안중 하나이고 만약 사고가 발생할 경우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여 이는 종합보험가입여

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그리고 비보호 좌회전이 설치된 구역에서 보행자 신호가 연동되는 경우가 많은데 자칫 보행자를 충격하게 될 수도 있다. 맞은편 차선에서 무작정 비보호 좌회전을 시도하는 차량이 있을 수 있는데, 과실정도를 따지기 앞서 좁은 도로 교차로에서는 항상 방어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앞으로는 올바른 통행방법을 숙지하여 비보호 좌회전에서는 직진운전자도 주의를 살피고 운전하여야 하며 모든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며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안전운전을 해야 한다. 시현진 장수서 교통관리계 순경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설

예산 확보 빨간불에 힘찬 행보를 기대한다

전북도가 내년 예산 확보를 위해 나서야겠다. 지금처럼 중앙정부가 정쟁에 휘말려 어지러울 때 일수록 전북도가 실력 발휘를 해야겠다. 조국 청문회말고라도 선거법 개정안 처리 등 산남어 산이라 전북의 문제가 아예 관심 밖으로 밀려나 있지 않는데 내년도 예산 4천억 원 증액을 위하여 뛰어야겠다. 이리다간 현재 주목을 받고 있는 탄소산업조차도 주춤거리게 될 공산이 크다. 거듭 반복해 말하거니와 전북의 낙후를 생각하면 예산 증액은 다다익선이 아닐 수 없다. 8조원 예산이라도 부족하고 9조원 예산이라도 풍족을 말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전북도는 도민의 여망을 받들어 지역 발전에 매진해야 한다. 지역 발전 매진 발언은 지난날에도 여러 번 반복했던 바이지만 지금은 정서가 다르다. 지역 발전 매진과 관련해 주문의 성격이 다르다는 이야기다. 과거와 같은 정도로 지역 발전 요구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전북도의 예산 확보를 위한 행보는 구체적인 성과로 나타나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북의 낙후를 생각할때 8조원도 부족하고 9조원도 풍족을 말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거니와 전북도는 도내 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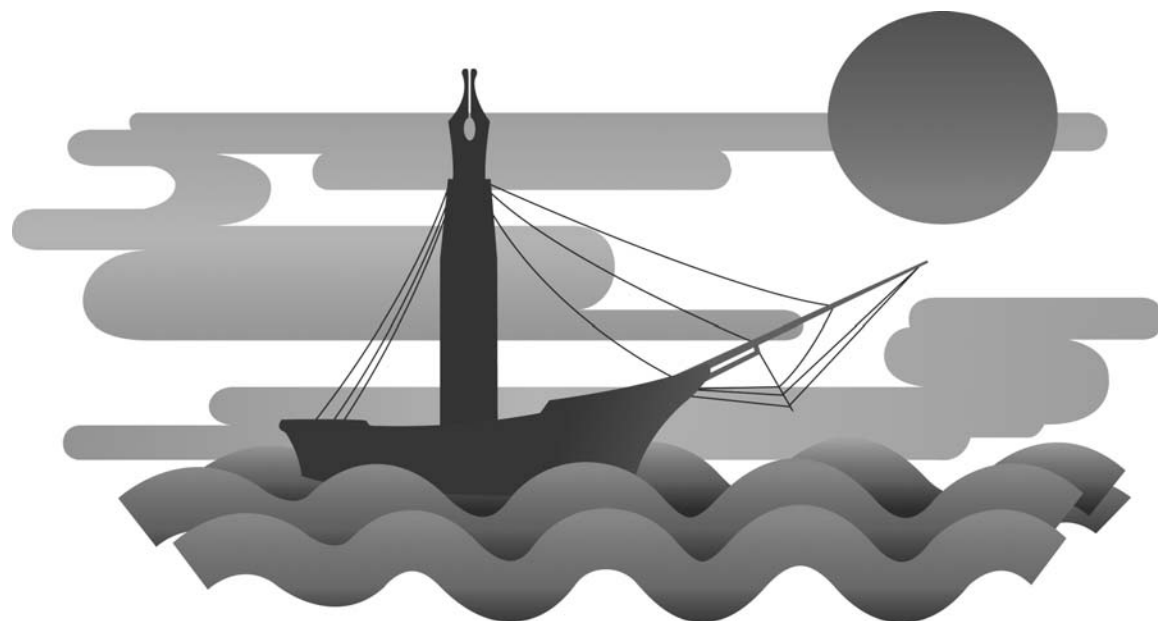
전 현안이 중앙정부로부터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가에도 민감해야 한다. 추석이 다가오고 있으므로 오래 전에 했던 말을 또 해야겠다. 전북의 소득 유출이 4조원대라는 보도가 있어서 말이다. 그 4조 원대의 유출이라는 것은 도내 경제 상황을 생각할 때 역장이 무너지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전북도는 크게 분발해야 한다. 한 해 예산이 7조원대인데 지역에서 빠져 나가는 돈은 4조 원대라니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아니고 그 무엇인가. 현실이 이러한데 전북도가 지역 발전 운운하고 있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전북도는 제류 찾기에만 열을 날게 아니라 제류 지키기부터 제대로 해야겠다. 전북도는 도민의 염원에 부응해야 한다. 다들 목도하는데도 우리 지역은 발전상이 시원치 않다. 다른 고장은 내일이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은 뒤처진 채로 있다. 고장의 발전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전북도는 발전 현안을 사업 시스템으로 발전시키고 가동시켜야 한다. 도지사과 고위 관계자들에게 주는 도민들의 주문은 한결 같다. 계속해서 지역 발전에 매진해 달라는 당부이다.

지금은 고용 안정에 마음을 써야 할 때

고용 안정에 마음을 써야겠다. 고위 공직자들과 기성 세대의 힘 있는 자들에게 주는 말이다. 고용 안정 문제를 손 놓고 있어서는 곤란하다. 지역경제가 불안정한데다 일자리가 부족해더 고민마저 불안정하다면 곤란하다. 역시나 예전 그대로 청년 실업률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고용을 최지라는 성격표가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는데 전북도와 지역사회가 속히 해결해야겠다. 전국 최하위 고용률이라는 이 부끄러운 기록이 과연 언제까지 지속시킬 것인지 난감하다. 정말이지 청년고용 활성화에 관심을 갖고 대책을 강구해 마땅한 오늘이 아닐 수 없다.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을 보면 답답할 뿐이다. 전북도는 먼저 출신수행하는 자세로 지역 인제 고용의 사례를 많이 보여줘야겠다. 지역의 청년 고용 열기가 아직도 미지근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외환위기 이후 청년실업률이 가장 높다는 지적이 오래 전부터 반복되고 있다. 미취업 젊은이들이나 비정규직에 있는 젊은이들의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 감정이입을 가지고 역지사지 해야 한다. 전북도는 고용 열기를 더 달구

어야겠다. 물론 도내 모든 공공기관들도 지역인제 고용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전북도와 각 시군 지자체와 공공기관들은 많은 젊은이들이 아직도 미취업자로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일자리가 예전보다 못했었다 오히려 줄고 있는 현실이 답답하다. 고용 현실이 전국에서도 밑바닥 수준이라는 지적이 괜한 것이 아니다. 전북도와 각 지자체는 청년 실업의 현실을 총체적으로 보아야 한다. 청년 실업 내용을 들여다 보면 전북도와 각 시군 지자체가 파악한 그 이상으로 심각하다. 거듭 말하거니와 청년 고용문제는 손 놓고 있을 일이 아니다. 그리고 한두 번 해결을 모색해보고 그만 둘 것도 아니다. 일자리 창출이며 고용 실적이 낮음에도 그럭저럭 관용은 것처럼 넘어가려는 것도 그 모양이 안 좋다. 일자리 창출이며 청년 고용은 전북도와 각 시군 지자체의 진정성과 능력 발휘가 관건이다. 그리고 공공기업들의 협조도 필수적이다. 전북도와 각 시군 지자체는 어떻게 하면 고용안정 전국 최하위 성적을 떨쳐버릴 수 있을지 이마를 짚고 고민해야겠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